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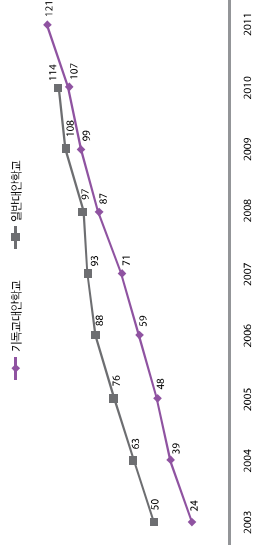
##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의 현황과 진단

6 박상진(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장신대 교수)

한국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많은 수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지난 2006년에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독교 대안학교 가이드>라는 책으로 출판한 바 있다. 그 후 5년 동안 어느 정도 기독교 대안학교가 설립되었고 그 실태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도에 제2차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 글은 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되는 것은 급속하게 기독교 대안학교의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6년 당시 기독교 대안학교의 전체 수는 59개교였는데, 2011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121개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

로서 가히 폭발적인 장성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해 에 평균 12개교 이상 설립된 것인데,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소위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먼저 기독교 대안학교 수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독교 대안학교와 일반 대안학교 설립학교 수 추이

일반 대안학교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일반 대안학교가 2007~2010년까지 26개, 평균적으로 약 8개가 세 워진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대안학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독교 대안학교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 하여 현재 학교 수에 있어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수가 일반 대안학교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2012년도에 개교한 기독교 대안학교도 10개나 되 어서, 2012년 6월 현재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는 131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 확장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설립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아 래 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2006년 실태조사에서는 강원도와 제주도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있 지 않았는데, 이번 2011년 실태조사에서는 강원도에 5개교, 제주도에 4개교가 설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5년 사이에 이들 학교가 설립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로 이제는 전국의 모든 도에 기독교 대안 학교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연도	서율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전체
2011년	13	53	5	17	18	11	4	121
기독교대안학교	10.7%	43.8%	4.1%	14.0%	14.9%	9.1%	3.3%	100.0%
2006년	3	21	0	9	7	3	0	43
기독교대안학교	7.0%	48.8%	0.0%	20.9%	16.3%	7.0%	0.0%	100.0%
2010년	22	40	8	10	16	17	1	114
일반대안학교	19.3%	35.1%	7.0%	8.8%	14.0%	14.9%	0.9%	100.0%

(단위) 기독교 대안학교 지역별 분포

이들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활발한 설립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1) 기독교 국제학교의 증가

기독교 대안학교가 많이 설립되었다면 어떤 유형의 기독교 대안학교들인가? 설립된 학교의 이름을 통해 서 대략적인 유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의 이름은 학교의 이념과 교육목적 등 그 학교의 정

체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학교명에 들어간 단어를 중복으로 김시하여 횡수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학교명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기독교' 또는 'christian'이다. 121개의 학교 중 33개(27.9%)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표3>. 그다음은 '국제' 또는 '글로벌'로, 32개(26.2%)이다. '기독교'를 표명에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국제, 글로벌'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기독교 국제학교'가 많이 설립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는 일반 대안교육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로 기독교 대안학교가 국제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체학교=21개)

	서율	강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전체
2011년	13	53	5	17	18	11	4	121
기독교대안학교	10.7%	43.8%	4.1%	14.0%	14.9%	9.1%	3.3%	100.0%
2006년	3	21	0	9	7	3	0	43
기독교대안학교	7.0%	48.8%	0.0%	20.9%	16.3%	7.0%	0.0%	100.0%
2010년	22	40	8	10	16	17	1	114
일반대안학교2)	19.3%	35.1%	7.0%	8.8%	14.0%	14.9%	0.9%	100.0%

<표3> 기독교 대안학교 학교명 분석

공정적으로 이해한다면 급속도로 세계화되는 시대 속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독교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국제' 또는 '글로벌'이라는 교명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기독교 대안학교들도 어떤 형태로는 '기독교적 국제성'을 교육 가치 속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학생들이 사는 시대가 세계화 시대이기에 따라 국제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미국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제성이 영어를 강조하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외국 유학 준비학교의 형태를 따거나 원어만 강사를 통해서 영어 몰입교육이나 영어실력을 높이는 교육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나라의 관점에서 자문화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다양성과 다름을 이해하고 선진국만이 아니라 저개발국가에 관한 관심과 그들을 향해 섬김과 선교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도시형 학교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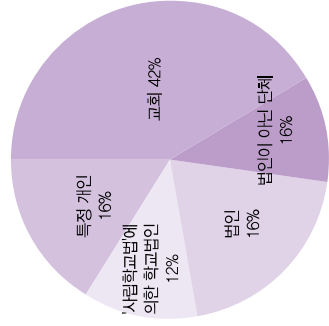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도시형 학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전원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과거에는 전원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도시형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본 실태조사에 의하면 설립된 역사에 따라 도시형, 전원형의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는데, 10년 이상 된 학교는 전원형이 67%를 차지한 것에 비해서 역사가 짧을수록 도시형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다 '대안성이 강조되는 학교, 즉, 생태, 노작, 평화, 자율 등 자연환경 속에서 근대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추구하는 학교'보다는 도시 속에 있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위의 표(우측)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 올수록 지속형 학교보다는 통학형 학교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광역시에 있는 학교는 인접한 도에 편입해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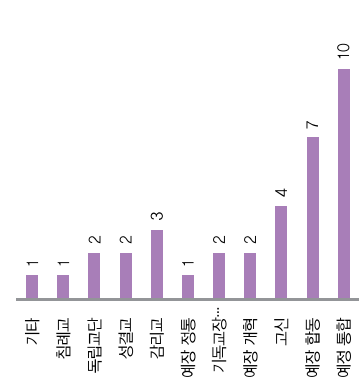
이는 2010 대안학교설립이들 근거해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는 기독교 대안학교가 14개 포함되어 있다(이하 생략).

## 3) 교회 설립 학교의 증가

기독교 대안학교의 설립이 늘어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교회가 설립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꾸준한 증가라고 볼 수 있다. <그림2>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가 설립한 경우가 4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교육적 사명을 강하게 인식하고 종래의 주일학교 차원의 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중의 학교에서도 명실상부한 기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회의 '기독교적 교육의 외연 확대, 그리고 신앙과 학업을 통합하는 노력'이라는 긍정적 인 면과 동시에 학교의 교육적 자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부정적 면이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한 교회의 교단별 분포를 보면 오른쪽 <그림3>과 같은데, 여전히 장로교가 가장 많고, 그중에서도 통합 교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모든 교단이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동참하고 있어서 범교단적으로,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운동이 확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 2011년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주체



<그림3> 2011년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교회 교단 분석

기독교 대안학교의 활발한 설립과 이로 말미암은 기독교학교의 증가는 그만큼 이 땅에 기독교교육운동이 확산하고 있고, 그동안 교육고통으로 시달리는 수많은 사립에게 기독교적 대안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확장은 그만큼 질적 성숙을 요구하고 있음을 동시에 인정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 대안교육이 양적으로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숙하여 기존의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왜곡된 교육에 대한 진정한 대안적 교육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 제도적으로 기독교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독교 대안학교 자체의 내실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공동체적인 나눔과 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게 될 때 기독교 대안학교는 더불어 성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계기로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한 단계 더 도약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땅의 교육고통을 치유하고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상진 장신대학교 교수이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 인사·사교육 비서관으로 기독교교육진흥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오늘날의 교육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과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학교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교회교육 원형론", "기독교교육과 사회" 등이 있다.